

개인용 덕질 기록 앱

[개요]

애니메이션, 소설, 드라마, 영화, 웹툰, 웹소설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작품을 기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뷰와 별점을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개인용 덕질 기록 앱.

주요 기능은 사용자가 감명 깊게 본 작품의 후기를 스스로 앱에 남기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
[기획 이유]

어떠한 작품을 보고 나서 해당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작품을 떠올려 봤을 때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어떤 장면이 좋았는지 등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. 나 같은 경우 영화나 소설이 재미있으면 짧게나마 감상을 적어놓는 버릇이 있는데 노트 같은데 아무렇게나 적어두니까 어떤 작품이 재미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었다. 또한 "그때 추리물이었던 그 작품이 뭐였더라"라며 한 번 재미있게 봤던 작품을 찾지 못해 해맨 적도 많았다.

이러한 불편함에서 작품을 본 뒤 느낀 감상을 적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으면 나의 감상을 적는 것도 편하고 나중에 원하는 작품을 다시 찾는 것도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내가 봤던 작품을 온전히 내 방식대로 기록해 두고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이러한 불편함의 대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어떤 분야건 덕질을 즐기는 덕후가 존재하여 해당 앱을 필요로 하는 나 같은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.

단순히 한 작품을 본 뒤 재미있었다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이라도 스스로 어떤 감상을 느꼈는지를 적어둔다면 재미있게 본 작품에 대한 여운이 오래 남을 수 있다. 더불어 이 앱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작품을 가장 좋아하고, 어떤 장르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며, 스스로의 덕질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다. 즉, 덕질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다. 그런 부분에서 이 앱은 나만의 취향과 감정을 기록하는 서재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.

[기능]

작품 기록 시 : 카테고리 선택/작품 제목/별점/리뷰 내용/태그 클릭 (액션, 로맨스, 스릴있는,

반전 있는, 감동적인 등등) +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직접 해당 작품의 대표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다

태그 설정에서 장르와 키워드를 분리하는 게 좋을까? 분리하지 않으면 UI 측면에서 더 간편하겠지만 장르와 키워드의 개념이 섞인다는 문제점 있는 듯

앱 설치 직후

- 닉네임 설정

메인 메뉴창

- 닉네임 변경
- 작품 작성/수정/삭제 기능
- 기본 창 : 최신순으로 작품 정렬
- 작품 제목으로 검색

취향 보기 메뉴창

- 가장 많이 본 카테고리 순위
- 가장 많이 본 태그 순위
- 나의 평균 별점

(이건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나면 일주일/한 달/일 년/전체 이렇게 보고 싶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듯)

내 리뷰 모아보기창

- 카테고리별로 작품 보기
- 태그별로 작품 보기 (태그 중복 선택 가능. 로맨스/설레는 두 가지 태그를 고르면 두 태그가 모두 선택된 작품만 보이게 됨)
- 별점 별로 작품 보기 (ex. 별점 4~5점의 작품만, 별점 0~1점의 작품만)

[기대효과]

한 번 즐겁게 본 작품의 여운과 그때의 감정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.

과거에 봤던 작품을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다. 해당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.

나도 몰랐던 나의 취향들을 확인할 수 있다 - 본인이 여러 덕질 카테고리 중 영화를 가장 좋아했다는 것, 스릴러 장르를 가장 좋아했다는 것, 스릴 있는/박진감 넘치는 등의 키워드가 붙은 작품을 가장 재미있게 봤다는 것 등등.

별점 확인을 통하여 나의 덕질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.

[참고할 만한 앱]

왓차피디아, 네이버 리뷰, 기타 독서 리뷰 커뮤니티 앱 등등 : UI 참고

왓차피디아와 같은 리뷰 앱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작품에 대해 여러 리뷰를 남긴다. 사용자들이 리뷰를 남기는 어플리케이션이야 네이버 리뷰부터 왓차피디아까지 아주 다양하다. 그러나 내가 봤던 작품에 내 감상을 내가 작성하고 그 글을 전부 모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앱은 존재하지 않는다.

[추후 확장 계획] - 실제 구현X 보고서 및 발표 등에서만 활용할 예정

커뮤니티 기능 혹은 친구 추가 기능을 넣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덕질 기록까지 볼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싶다. 나 하나의 덕질 기록에서 모두의 덕질 기록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,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며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은 새로운 작품을 발견할 수도 있다.

[이름 후보]

에버노트(Evernote) → 에버덕트(Everduckt)

굿노트(Goodnotes) → 굿덕(Good-Deok)

덕모아 (덕질의 모든 것)

밀리의서재 → 덕질의 서재

덕질로그: 덕질로 돌아보는 나